

『한국개혁신학』 12 (2002): 385-401.

19세기 미국 개혁파 성령운동의 여러 패러다임

-한국 장로교 초기 성령운동의 뿌리 찾기 -

The Various Paradigms of Reformed Spiritual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United States

배본철(성결대)

1. 서론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교계는 현재 New Age 영성과 같은 범신론적 신령주의, Vineyard 운동을 포함한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 등에서 종종 나타나는 지나친 육감주의(肉感主義),¹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manifestation of Holy Spirit)에 대한 이기적인 오용(誤用) 등 많은 영적 문제들을 내포한 채 바람직한 성령운동의 방향성을 잡지 못해 갈등하고 있다. 과연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나아갈 바람직한 길은 어디인가?

이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작업은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뿌리를 점검, 분석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초기 한국교회가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성령론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² 근대 복음주의 운동의 영

¹ ‘제 3의 물결’에서 나타나기 쉬운 지나친 肉感主義의 실례에 대해서는 배본철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발표 논문인 “한국의 급진 성령론에 대한 역사신학적 통찰”, <聖經과 神學> 제 20권(1996), 447-8을 참조하라.

² 물론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특성을 형성함에는 외래적인 신학과 신앙의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재래적인 요인으로서 당시 한반도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재래 종교의 유산이 한국인의 심성에 미친 현저한 영향을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한국교회 성령운동사에 미친 재래적

향,³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초까지에 걸친 영미(英美)의 성령운동의 영향이 한국교회 성령운동에 직접적인 것이라 할 때, 그 영향이란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⁴ 근대 웨슬리안 성결운동, 근대 오순절운동의 세 범주로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은 한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과 교회에, 근대 웨슬리안 성결운동은 감리교와 성결교회에, 근대 오순절운동은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교회에 직접적인 교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글은 특히 한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과 성령운동의 초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19세기 영미 개혁과 성령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목격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대부분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의 전통에 충실히 서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같은 전통, 즉 중생한 자들이 회개하고 간구하여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강조는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 이후 한국적 부흥회의 특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⁵ 예를 들어, 현재까지도 한국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흥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중생과 성령세례를 구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의 성격을 분석하여 한국 초기 장로교 성령운동의 뿌리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전통 속에 나타난 복음적 성령운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이를 영성운동의 여러 갈래길 속에서 방황하는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심성의 영향은 실로 커서, 외래적인 성령 신앙을 재래적 심성의 틀 속에서 녹여서 나름대로의 특유한 한국적 성령운동의 양상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재래적 요인을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뿌리였다기보다는, 다만 성령운동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봄이 적당할 것이다. 한국교회 성령운동에 미친 재래적 심성에 대한 연구는 배본철, “한국교회사 속의 성결-오순절운동”, <聖潔神學研究> 제 3집(1998)을 참조하라.

³ 이 글에서 필자가 사용한 ‘근대’(近代)라는 시대 설정은 특히 초기 한국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영미의 성령운동 시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남북전쟁(1861-5)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초까지의 시기로 본다.

⁴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이란 19세기 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개혁주의-칼빈주의 노선에서 일어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목표로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강조점을 둔 부흥운동을 일컫는다.

⁵ 그런가 하면 한국 개혁과 성령운동속에는 이와는 또 다른 성령운동의 전통이 세워져 왔다. 즉, 중생과 성령세례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노선이 그것이다.

2. 19세기 미국 성령운동의 배경

19세기 미국 교회에서는 성령론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날카로운 신학적 논쟁의 주제로서 성령론이 달아오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성령론의 이견들로 인해 19세기 미국 교파 분열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19세기에 성령론이 크게 부각된 이유들을 몇 가지 들 수 있다. 당시 미국에는 초월적인(transcendental) 신념들의 도전이 미국적 사상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고,⁶ 이러한 경향성은 곧 미국의 기독교계에 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삶에 대한 강조를 불러넣어 주었다.⁷ 그래서 부흥사들은 John Bunyan이 「천로역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적 이상향(理想郷)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었다.⁸ 또 영국에서 건너온 감리교의 영향이 미국에서 강력해지자, 자연스럽게 제 2차적 축복(the Second Blessing)으로서의 성결에 대한 강조가 성령운동에 큰 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남북전쟁(1861-65) 전 미국에서는 성령론에 대한 강조가 다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1820년대 이후부터 ‘성결’에 대한 질문이 초교파적으로 일어났다.⁹ 이는 전도와 사회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던 미국적 상황으로 볼 때 필연적인 질문이었다. 둘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 자유의지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적, 문화적 낙관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전쟁 전, 특히 1840년경에 이르러서는 완전주의(perfectionism)가 미국의 사회적, 지성적 그리고 종교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 되는 주제가 되어갔다.¹⁰

⁶ 초월주의(超越主義, Transcendentalism)란 19세기 미국 뉴잉글랜드의 작가와 철학자들이 벌인 운동으로서, 이들은 모든 피조물의 본질적 단일성, 사람이 선천적으로 선량함, 및 가장 심오한 진리를 밝힘에 있어서 논리나 경험보다는 통찰력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관념론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⁸ Jerald C. Brauer, *Protestantism in America*(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 160.

⁸ Melvin Easterday Dieter, *The Holiness Revival of the Nineteenth Century*(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 1980), 4-5.

⁹ Richard Gilbertso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Camp Hill,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s, 1993), 11.

¹⁰ 미국의 남북전쟁 전후의 사회 변화와 부흥운동과의 관계성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Timothy L. Smith, *Revivalism and Social Reform*(New York,

1857-58년의 부흥운동 기간에는 마치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의 부어짐이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신념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순절’(Pentecostal)이라는 고전적 용어가 성령운동에 새롭게 등장하여,¹¹ 마침내 전쟁 이후 문화적, 신학적, 교파적 진전에 있어서 하나의 큰 조류를 형성해가게 되었다.

1865년에 전쟁이 끝나고 1870년대에 접어들자,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즈음에 미국 개신교는 또한 영국 등지로부터 건너온 성서의 고등비평과 다윈주의에 노출되어 크게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특히 남북 전쟁 이후 압박한 종말론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대대적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전쟁 이후의 성령운동은 이같은 도전과 요청에 직면하여, 전쟁 전의 성령운동이 인간의 의무와 능력을 강조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능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함께 특별히 성령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게 되었다.

1870년대 이후에는 대중전도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Dwight L. Moody¹²이다. 그는 신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았고, 이같은 그의 강조는 능력을 갈망하던 당시의 요구에 걸맞는 것이었다.

전천년설은 전쟁 후 미국의 기독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의 변혁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을 던져주었다. 또 전천년설은 압박한 종말론적 메시지와 함께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무엇보다도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대대적인 성령강림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이같은 기대가 종종 ‘늦은 비’(latter rain)라는 용어로 표현되곤 했다.¹³

1870년대 이후에는 삼 단계로 세대를 나누는 경향이 짙었는데, 곧 구약의 역사,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1957)을 참조하라.

¹¹ Gilbertson, *op.cit.*, 16.

¹² 183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서 태어난 복음전도자. 그가 1886년에 설립한 Moody Bible Institutes를 통해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다.

¹³ Frederick Dale Brun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70), 28.

전술한 바와 같이, 1870년대 이후에는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성령운동의 다양한 영역에 덧붙여지게 되었다.¹⁴ 성령에 관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의 사용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1870년 전에는 주로 죄성의 정화(淨化)와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나,¹⁵ 전쟁 이후에는 능력에 관계된 사도행전의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었다.¹⁶

또 전쟁 이전의 성결론에 있어서는 대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결(Christocentric sanctification)에 강조점을 둔 반면, 전쟁 이후에는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사역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Asa Mahan의 경우이다. 전쟁 전인 1846년의 그의 저작인 *Scriptur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에는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전쟁 후 1870년의 저작인 *Baptism of the Holy Spirit*에서는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주된 강조점을 보이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다.¹⁷ 이처럼 전쟁 이후 인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은 성령운동에 ‘성령의 권능’, ‘권능을 주심’(empowering) 또는 ‘권능 받는다’(empowered)이라는 표현을 자주 등장시켰다.

그래서 웨슬리안 성결운동 그룹에서는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세례’에 의해 성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봉사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정화 차원과 함께 능력 차원을 새롭게 부가시킨 것이다. 또 이보다 급진적인 노선을 표명한 이들은 소위 ‘제 3의 축복’(the Third Blessing) 그룹인데,¹⁸ 그들은 성결 체험을 제 2의 축복으로, 능력 체험을 제 3의 축복으로 분리해서 다루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개혁과 성령운동 그룹에서는 성결의 차원에 대해서는 점차 덜 강조하고, 그 대신 ‘봉사의 능력’(power for service) 차원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3. 오벨린 완전주의: 성결을 위한 인간의 수단

¹⁴ Donald W. Dayton, *The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86), 92.

¹⁵ 예를 들면, 마 5:48; 요 17:20-23; 고후 7:1; 살전 5:23-23.

¹⁶ 예를 들면, 행 1:8, 2:4, 19:2.

¹⁷ Gilbertson, *op.cit.*, p.21. 이 외에도 Asa Mahan의 *Doctrine of the Will*, 3rd ed.(Oberlin, OH: J. M. Fitch, 1847)을 참조하라.

¹⁸ 성결운동의 주류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들을 ‘제 3의 축복 이단’(the third blessing heresy)이라고 혹평하였다.

19세기 장로교의 신학적 이슈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었다. 그 중에서 인간의 부패성을 강조하는 파가 구파(舊派)인 Princeton 파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파가 신파(新派)인 Union 파였다. 구파 칼빈주의는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한 나머지 '숙명론'으로 기울어진 감을 주었고, 이같은 소극적인 인간론은 새로운 국가적 이상에 적합치 않았다. 제 2차 대각성운동 기간에 형성된 뉴헤이븐(New Haven) 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과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오벌린 완전주의자들은 개혁주의 계약 개념에다가 이같은 노선을 첨가하여 나름대로의 성결론을 형성해 나갔다.

특히 1830년대 후반에는 미국 개혁과 전통에서 새로운 형태의 완전주의가 Charles G. Finney와 Asa Mahan을 중심으로 일어났다.¹⁹ 피니는 개혁과 노선에 있어서 자유로운 구원과 인간의 선택을 강조한 완전주의자들 중의 대표자로 들 수 있다. 피니는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거친지 몇 년 후, 두 번째 축복을 체험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와 그의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 동료들은 이른바 '오벌린 완전주의'(Oberlin Perfectionism)라고 불리는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²⁰ 그런가 하면 그는 부흥운동에 인간의 심리학적 기초에 근거를 둔 수단 또는 기술에 대한 강조를 한 일에 있어서도 이전의 부흥사들과는 구별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후대에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웨슬리안-성결 그룹의 Phoebe Palmer처럼, 피니도 역시 성화의 점진적인 면보다는 즉각적인 변화와 고백에 중심을 두는 방향에 강조를 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개혁과 부흥회가 회심을 궁극점에다 두는 점에 비해서 볼 때, 피니는 회심을 신앙 경험의 시작으로 보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피니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가 열망하는 성결의 단계를 단지 자유의지를 훈련하고 '올바른 의도'를 계발함을 통해 얻을 수

¹⁹ Charles G. Finney는 이 부흥을 재조직하고 새롭게 활기를 띄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젊었을 때 한때 칼빈주의 교회에 참석했으나, 곧 칼빈주의 교리에 반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교리의 깊은 연구를 통해 1836년경에는 온전한 성결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1837년에 그는 Oberlin 대학에 가서 Asa Mahan 학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²⁰ 오벌린 완전주의에 대한 훌륭한 소개를 위해서는 Timothy Smith, "The Doctrine of the Sanctifying Spirit: Charles Finney's Synthesis of Wesleyan and Covenant Theolog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Spring, 1974), 92-113을 보라.

있다고 하였는데, 이같은 피니의 오벌린 신학(Oberlin Theology)은 그가 받은 칼빈주의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Wesleyan 성결론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 피니는 신과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노선이었다. 반면에 웨슬리안 성결론은 의지적 결단은 성결 체험에 대한 동기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성결 체험을 주신다는 노선이다.²¹

4. 죄성에 대한 승리

1858년에는 장로교 목회자인 William E. Boardman에 의해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The Higher Christian Life*)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특히 Methodists 전통 이외의 사람들에게 성결의 은혜를 해석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²² 그는 개혁주의 전통의 긍정적인 측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화를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웨슬리안 완전주의나 오벌린 완전주의와 동일시하고 싶어하지 않았다.²³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의의 주로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결의 주로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자의 믿음은 신자의 두 번째 회심(second con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하고 난 후,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의식적인 증거'(a conscious witness of Christ's indwelling)를 얻게 된다. 그는 이 두 번째 회심을 성령세례라고 불렀다.²⁴

이렇게 해서 시작된 '더 높은 삶'(Higher Life) 운동에는 보드맨 외에도 Robert Pearsall Smith와 Hannah Whitall Smith 등이 크게 활약하였다. 비록 그들은 미국인이었으나, 그들의 영향력은 영국에 크게 미쳐서 마침내 Keswick 운동에도 큰 감화를 주었다.

Keswick 운동의 중요한 지도자인 Evan Hopkins는 죄의 뿌리를 죄성이 아닌, 악에 대한 경향성으로 설명했다. 그러므로 성결은 고정된 정

²¹ Timothy L. Smith, *Revivalism and Social Reform*(New York, 1957), 104.

²²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71), 30.

²³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의 성결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26-7.

²⁴ W. E. Boardman, *The Higher Christian Life*(Boston: Henry Hoyt, 1859), 198, 237.

결의 상태(a fixed state of purity)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상황(a maintained condition)이다. 그는 죄의 완전한 분리나 제거가 아니라 죄악의 경향성에 대한 ‘반작용’(counteraction)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흠킨스의 견해를 Handley Moule이 다소 온건한 형태로 추종하였다. 이같은 초기 Keswick의 죄에 대한 이해가 후기에 와서는 세대주의적 영향으로 F. B. Meyer와 같은 이들을 통해 육체적 전적 부패성과 죄성의 억제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졌다. 그러나 Gordon, Pierson, Moody, Torrey와 같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성결론은 세대주의 견해와 케직의 가르침 사이에 위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세대주의적 두 본성 이론보다는 케직에서 주장하는 죄성에 대한 승리의 방향에 대해 더 많은 강조점을 띠었다.²⁵

Handley C. G. Moule, F. B. Meyer 그리고 Andrew Murray와 같은 케직 운동의 지도자들은 1870년대 이후 영국인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사역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Moule은 그의 저서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 받게 된다고 보았다.²⁶ 이같은 케직의 성령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결에 대한 케직의 가르침에는 무엇보다도 ‘자기에 대한 죽음’(death to self)이 먼저 강조된다. (2) 그 후에는 성령의 충만을 즉각 받아들이는 일이 요구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온전한 헌신이 전제된다. 케직의 가르침에는 성령세례라는 용어보다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였다. (3)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이다. 비록 죄를 이기는 능력과 봉사의 능력이 강조될지라도, 케직 가르침의 최종적

²⁵ 초기 및 후기 Keswick 성결론의 변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박명수가 「근대 복음주의의 성결론」, p. 166 이하에서 소개한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Evan Hopkins, *The Law of Liberty in the Spiritual Life*(London: Marshall Brothers, 1884); Handley C. G. Moule, *Practicing the Promise*, 원제는 *Thought on Christian Sanctity*(Chicago: Moody Press, 1975; original edition, 1885); Handley C. G. Moule, *Outline of Christian Doctrine*(New York: Thomas Whittaker, 1889); F. B. Meyer, *Christian Living*(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 n.d.); F. B. Meyer, *Calvary to Pentecost*(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894)

²⁶ Handley C. G. Moule, *Christ Is Victor*(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96), 64.

인 극치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데 있다.

Asa Mahan이 1870년에 발행한 「성령세례」(*The Baptism of the Holy Ghost*)는 북미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 책은 그가 전에 영향을 받은 오벌린 완전주의 등에 기초한 것이었다. 마한의 가르침 속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람이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²⁷는 견해였다. 그는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의 몇몇 특별한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게 되면 봉사과 거룩한 삶에 있어서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성령세례의 결과를 주로 ‘영원성’과 ‘능력’이라는 의미로 기술하고 있거나 좀더 자세히 말하면, (1) 우리의 자연적 능력에 대한 각성 (2) 인내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을 주는 것 (3)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이해 (4) 소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5) 성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보다 친밀한 교제 (6) 깊고 영원한 영적인 축복 (7) 신자간의 영의 하나됨으로 묘사한다.²⁸

피니도 마한과 마찬가지로, 그의 후기 사역에 있어서 성령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²⁹ 초기에 그는 오벌린 완전주의의 선구자로서 참 신자에게 나타나야만 할 변화된 윤리적 삶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신자들에게 성화된 삶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르쳤다. 성결이란 우리의 모든 힘과 관심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자유의지와 믿음을 활용하여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그의 후기 사역에서는 그 중심점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성결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성령세례를 받아야만 하고, 이 은혜는 신자가 자신의 의지를 성령의 인도와 지도와 영향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주어진다고 했다. 피니의 성령론이 가장 완숙하게 나타난 것은 그의 마지막 저술인 「능력의 부여」(*The Enduement of Power*)에 잘 드

²⁷ Richard Gilbertso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Camp Hill,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s, 1993), 155.

²⁸ Asa Mahan, *The Baptism of the Holy Ghost*(New York: Palmer and Hughes, 1870), 52 ff.

²⁹ 전쟁 이전에는 ‘성령세례’(baptism of the Holy Spirit)라는 용어가 *Oberlin Evangelist*나 *Guide to Holiness* 등의 간행물에 약간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Gilbertson, *op.cit.*, 15.

러나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핵심은 신자는 성령세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인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었다.³⁰

5. 봉사의 능력

18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대중복음전도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서 Dwight L. Moody를 들 수 있다. 부흥운동가로서, 비록 신학적인 깊이는 없으나, 그의 저술 속에는 거룩한 삶과 특히 봉사의 능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난다.³¹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날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육체와 죄악을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웨슬리안-성결 그룹과는 달리, 무디는 성결이 순간적인 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신앙의 열매라고 보았다. 그래서 성령세례와 성결을 연관시키는 어떠한 종류의 이론도 그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³²

무디는 자신이 1881년에 저술한 「은밀한 능력」(*Secret Power*)에서 신자는 봉사의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디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비록 그들에게 성령이 거하실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믿었다.³³ 그러므로 이미 거듭난 자가 새삼스럽게 성령을 받겠다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신자는 강한 능력으로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무디는 신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온전한 준비가 이루어진 후에,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³⁰ Charles G. Finney, "The Enduement of Power", Asa Maha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New York: Palmer and Hughes, 1870), 231.

³¹ James F. Findlay, Jr., *Dwight L. Moody: American Evangelist 1837-1899*(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238-9.

³² Stanley N. Gundry, *Love Them In: The Proclamation Theology of D. L. Moody*(Chicago: Moody Press, 1976), 154.

³³ D. L. Moody, *Secret Power*(New York: Fleming H. Revell, 1881), 49, 51.

했다.³⁴ 기다리던 이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열매들이 뒤따르게 된다고 보았다.

무디는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사'(gift of the Holy Spirit for Service)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복음적 용어로서 이른바 '능력'을 갖춘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능력을 소유한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흔하게 그것은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사역에서의 특별한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한 차례의 특별한 부흥회 기간에 교회에 나타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복음주의자들에게 이 용어는 새로운 회심자를 교회로 인도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것이 능력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였다.³⁵

무디는 그의 친한 친구인 D. W. Whittle에게 자신의 돌발적인 두 번째 회심의 체험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그 체험의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능력'이었으며, 그때 이후로 그 능력이 자신의 사역을 지탱해 왔다고 했다. 그는 '성령 받는 것'(enduements of the Spirit)을 위해 추구하고 기도하라고 설교하곤 했으며, 이 능력을 모든 복음적 교단들에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궁극적 목표라고 종종 강조되었다.³⁶

무디에 의해서 강조되어지던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이는 Reuben Archer Torrey이다. 무디는 자기가 인도하던 부흥운동에 자주 토레이를 초청하여 그에게 성령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였다.³⁷ 토레이는 성령세례가 명확한 체험이라고 강조하면서,³⁸ 신자들은 자신이 성령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³⁹

³⁴ Gilbertson. *op.cit.*, 159.

³⁵ James F. Findlay Jr., *Dwight L. Moody: American Evangelist, 1837-1899*(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238-9.

³⁶ *Ibid.*, 239.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Moody와 William H. Daniels와의 중요한 논의가 *New York Christian Advocate*, 51(December 12, 1876), 393에 나타났다.

³⁷ Donald W. Dayton, *The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Grand Rapids: Francis Asbury Press, 1987), 103.

³⁸ 눅 24:49; 행 19:2 참조

³⁹ R. A. Torrey,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New York: Revell, 1897), 14-15.

또한 토레이는 성령세례가 중생 시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했다.⁴⁰ 그는 사도행전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초대교회에도 이미 거듭나긴 했으나 아직 봉사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확인하기를, “성령세례는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의 능력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⁴¹고 했다. 그는 개혁파적 전통을 따라 죄성이 순간적으로 제거된다고 하는 관념은 거절했으나, 성령의 사역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을 돕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신자가 성령세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6.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런가 하면 무디나 토레이와는 달리, Adoniram Judson Gordon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익을 깨닫도록 하는 일이라고 보았다.⁴² 그래서 오순절 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까닭은 교회로 하여금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함이라고 했다.⁴³ 그는 성령의 세례가 오순절 날 교회에 한번에 임했으며, 그 후에는 성령께서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거하시게 된 것이라고 했다.⁴⁴

이런 점에서 그는 신자에게 다가오는 체험의 의미에서 성령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원치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성령의 인침(sealing), 성령의 기름부음(anointing), 그리고 성령의 충만(filling)의 삼 단계로 나누어 신자의 성령 체험을 가르쳤다. 성령의 인침은 거듭날 때 단 한번 받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부음은 신자에게 봉사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그의 삶속에서 지속적으로 채움 받는 일이다.⁴⁵ 이같은 Gordon의 성령론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를 봉사함에 있어서 능력을 얻

⁴⁰ *Ibid.*, 17.

⁴¹ *Ibid.*, 18.

⁴² Adoniram Judson Gordon, *The Ministry of the Spirit*(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6), 24.

⁴³ *Ibid.*, 64.

⁴⁴ *Ibid.*, 69.

⁴⁵ *Ibid.*, 91.

으며 또한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맞춰져 있다.⁴⁶

기독교연합선교회(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의 창시자인 Albert Benjamin Simpson의 성령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들은 Boardman과 Gordon 등의 ‘더 높은 삶’ 노선의 개혁과 성령운동 그룹이다.⁴⁷ 그리고 그는 케직의 지도자들과도 믿음과 강단을 활발히 교류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서 무디와 심프슨이 함께 개최했던 대회에서 Meyer, Murray 같은 케직의 지도자들이 설교하곤 했다.⁴⁸

심프슨도 역시 ‘성령세례’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물론 그가 이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단지 거듭난 신자 속에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은 신자가 특별하게 영접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심프슨도 역시 성령세례를 성결의 차원과 봉사의 능력 차원 모두와 관련시켜 받아들였다.

성결에 대한 심프슨의 입장도 역시 개혁과 ‘더 높은 삶’ 노선과 비슷하였다. 죄성의 정화 차원을 강조한다거나 성결이 신자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어떤 구체적인 상태라고 보기보다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복종의 삶을 통해 그분이 준비하신 성결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 곧 성결이라고 보았다.⁴⁹ 이처럼 그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사역 사이의 관계성을 크게 강조를 하였다. 특히 성령의 능력을 통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indwelling Christ)에 대한 그의 강조가 돋보였다.⁵⁰

⁴⁶ Gordon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Ernest B. Gordon, *In Christ, or the Believer's Union with His Lord*(Boston: Guld and Lincoln, 1872); *The Twofold Life or, Christ's Work for Us and Christ's Work in Us*(Boston: Howard Gannett, 1883); *Adoniram Judson Gordon: A Biography*(New York: 1896)를 참조하라.

⁴⁷ Gilbertson, *op.cit.*, 173-77.

⁴⁸ A. E. Thompson, *The Life of A. B. Simpson*(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 1920), 110.

⁴⁹ A. B. Simpson, *The Fourfold Gospel*(Camp Hill,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s, 1984), 28-9.

⁵⁰ A. B. Simpson, *The Self Life and The Christ Life*(Harrisburg,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s, 1886), 9-10; A. B. Simpson, *A Larger Christian Life*(Harrisburg, PA: Christian Publications, 1886), 39ff.

7. 결론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성격은 적어도 한국인의 전래적 심성의 틀,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의 영향,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룬 서구에서 유입된 성령론의 내용 등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⁵¹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성격을 형성해 준 것은 19세기 말,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1870년대 이후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을 경험한 초기 서구 선교사들이 끼친 성령론의 영향이었다. 상대적으로 전쟁 이전의 성령운동, 예를 들면 성결을 위한 인간적 수단과 의지의 훈련 등을 강조한 오벌린 완전주의적 경향은 전쟁 이후의 '위로부터 내리는 초자연적 능력'으로서의 성령세례 강조에 비해 한국교회 성령운동에 미약하게 나타났다.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에 있다. 오벌린 완전주의가 너무 인간적 차원에 맞춘 것에 불만한 Higher Life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령론이라든가, Keswick에서 시작된 성결운동이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 것 역시 그렇다. Gordon이나 Simpson의 강조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의 두 번째 핵심으로서, Mahan이나 Moody 그리고 Torrey에게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는 중생한 자가 위로부터 받는 '봉사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세례 관념을 더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Keswick 운동에서 크게 중시하던 '죄성에 대한 승리'였다. 이 세 가지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의 핵심은 내한(來韓) 선교사들을 통하여 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장로교 부흥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중에서도 근대 개혁과 성령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의 관점이다. 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또한 교회사적으로도 가장 영속적인 복음적 성령운동의 모티브이다.⁵²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는 명백하게 하나님 형상의 구현으로서의 '그리스도 닮기'(Christlikeness)를 목표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주목할

⁵¹ 배본철, "한국교회사 속의 성결-오순절운동", <聖潔神學研究> 제 3집(1998), 108.

⁵² 배본철, "개신교 성령운동사의 큰 유산들에 대한 분석", <聖潔神學研究> 제 4집(1999), 53-4.

점이다.⁵³ 비록 이 점이 초기 부흥운동 때 강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시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이 진리가 범신론적인 신령주의로 오해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⁵⁴ 따라서 교회는 이 모티브를 성령운동을 통하여 신자의 삶 속에 충분히 적용시켜 나가는 일에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신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선 이때,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의 진정한 성숙을 위해 그 복음적 모티브를 강조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복음적 성령운동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되는 삶을 구현해 나가는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신자의 성화된 삶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능력을 위해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의 가르침과 그 구체적인 적용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⁵³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의롭다함 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과정으로 들어가며 새창조와 새로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됨을 바라게 된다.” Clark H. Pinnock, *Flame of Lov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Downers Grove,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1996), 151;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신자들의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교제를 개발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는 것이다.” 오성춘, 「영성과 목회」(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9), 50.

⁵⁴ 해방 이전, 특히 일제의 억압이 혹심하던 1930년대 전후에는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보기 드문 극단적인 영성운동의 사례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순화, 유명화, 황국주, 백남주 등의 거짓 계시와 종교혼합주의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친림(親臨)을 강조한 나머지 종종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곤 했다. 배본철, 「선교와 에큐메니즘 중심의 한국교회사」(서울: 문서선교 성지원, 1997), 184-5.

참고문헌

- Boardman, W. E. *The Higher Christian Life*. Boston: Henry Hoyt, 1859.
- Brauer, Jerald C. *Protestantism in America*.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
- Brunner, Frederick Dal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70.
- Dayton, Donald W. *The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86.
- Dieter, Melvin Easterday. *The Holiness Revival of the Nineteenth Century*. 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 1980.
- Findlay, James F. Jr., *Dwight L. Moody: American Evangelist 1837-1899*.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 Finney, Charles G. "The Enduement of Power", Asa Maha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New York: Palmer and Hughes, 1870.
- Gilbertson, Richar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Camp Hill,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s, 1993.
- Gordon, Adoniram Judson. *The Ministry of the Spirit*.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6.
- Gordon, Ernest B. *In Christ, or the Believer's Union with His Lord*. Boston: Guld and Lincoln, 1872.
- Gundry, Stanley N. *Love Them In: The Proclamation Theology of D. L. Moody*. Chicago: Moody Press, 1976.
- Hopkins, Evan. *The Law of Liberty in the Spiritual Life*. London: Marshall Brothers, 1884.
- Mahan, Asa. *Doctrine of the Will*, 3rd ed. Oberlin, OH: J. M. Fitch, 1847.
- Mahan, Asa. *The Baptism of the Holy Ghost*. New York: Palmer and Hughes, 1870.
- Meyer, F. B. *Calvary to Pentecost*.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894.
- _____. *Christian Living*.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 n.d.
- Moody, D. L. *Secret Power*. New York: Fleming H. Revell, 1881.

- Moule, Handley C. G. *Christ Is Victor*.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96.
- _____. *Outline of Christian Doctrine*. New York: Thomas Whittaker, 1889.
- _____. *Practicing the Promise, or Thought on Christian Sanctity*. Chicago: Moody Press, 1975. original edition, 1885.
- Pinnock, Clark H. *Flame of Lov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Downers Grove,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1996.
- Simpson, A. B. *A Larger Christian Life*. Harrisburg, PA: Christian Publications, 1886.
- _____. *The Fourfold Gospel*. Camp Hill,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s, 1984.
- _____. *The Self Life and The Christ Life*. Harrisburg,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s, 1886.
- Smith, Timothy L. *Revivalism and Social Reform*. New York, 1967.
- _____. "The Doctrine of the Sanctifying Spirit: Charles Finney's Synthesis of Wesleyan and Covenant Theolog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Spring, 1974.
- Synan, Vinson. *The Holiness-Pentecosta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71.
- Thompson, A. E. *The Life of A. B. Simpson*.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 1920.
- Torrey, R. A.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New York: Revell, 1897.
-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의 성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배본철. 「선교와 에큐메니즘 중심의 한국교회사」. 서울: 문서선교 성지원, 1997.
- _____. "개신교 성령운동사의 큰 유산들에 대한 분석". <聖潔神學研究> 제 4집 (1999)
- _____. "한국교회사 속의 성결-오순절운동", <聖潔神學研究> 제 3집(1998)
- _____. "한국의 급진 성령론에 대한 역사신학적 통찰", <聖經과 神學> 제 20권 (1996)
-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9.